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입 당 송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 1 독서 탈출기 3,1-8ㄱ.13-15

화 답 송 시편 103(102),1-2.3-4.6-7.8과 11 (©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후렴) 주 님 은 자 비 록 고 너 - 그 러 우 시 네.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2.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3.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4.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1-6.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 음 루카 13,1-9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사진 : 경춘모 알렉시오 신부(동향성당 주임)

3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기다림

저는 식물 키우는 재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관심에 더해서 각 식물의 특징 등을 습득하고 적용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매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가끔 겨우겨우 생명력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배운 작은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을 돌볼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애정을 줄 때 식물은 그동안 숨겨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잎이 마르고 꽃이 피지 않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겉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누군가를 판

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나름 기다렸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좀 더 자비로운 사람(루카 6,36)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에는 '더디시지만' 자애가 넘치시는 하느님(시편 103,8)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집 떠난 작은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버지(루카 15장)처럼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 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기다림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성급한 판단과 단절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자비로운 기다림'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 재배인은 포도나무들보다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에 더 많은 애정을 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1년을 다시 기다립니다. 우리도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평소에 무관심했고 거리를 두었던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인 '무화과나무들'에게 '자비로운 기다림'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을지 ...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노동사목 본부장



은전
한눈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면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신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3.21(월)~22(화)
이영훈 신부(노동사목 본부장)
3.23(수)~26(토)
고동균 신부(양산성당 보좌)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3.22(화) 13:00~14:00
진행 : 표용운 신부(가야부주임)
<부산의 맛집탐방 '오데가꼬?'>
출연 : 정용진 신부(사하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김다정 데레사
3.23(수) <하늘타리>
사순특강 - 성삼일 전례와 성가
출연 : 임석수 신부(부산가톨릭음악원)

청년으로서 스스로 매주 미사에 나가고 신앙인의 의무를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저 선생님들과 신부님, 수녀님들의 지도 아래에 마냥 즐겁던 학생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저의 흥미를 자극하는 즐거운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지켜오던 것들에 소홀해지고, 그것들이 지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새로움과 문화는 짜릿했고,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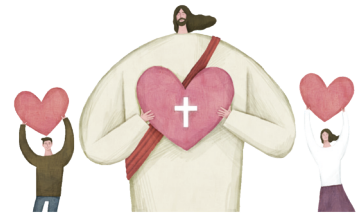
그 유혹이 저를 부풀려 가던 어느 날,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여느 때와 같이 청년들의 문화를 즐기고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토록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 잡은 공허는 떠날 줄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버거워지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오래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일 미사를 드리려 자리에 앉아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외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미사를 드리는 중에도 정말로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품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한 신부님께 묵주기도의 신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성가정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 안에 녹아든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모범은 세계 삶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늘 제 이름에 함께 했던 성인까지도 새

롭게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까지도 미숙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함에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과 수호성인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이제는 빈 마음에 따뜻함을 채우고 이 온기를 머금고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성가정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의로움과 믿음에 모범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 남 수 루카
하단성당



공동의 집 돌보기

II. 성경 이야기의 지혜

『찬미받으소서』 65항~75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66. 창조주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조화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여기고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어졌습니다. 결국 이는 이 땅을 “지배”(창세 1,28)하는 우리의 임무, 곧 “그곳을 일구고 돌보는”(창세 2,15) 임무를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자연이 맺은 본디의 조화로운 관계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창세 3,17-19 참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모든 피조물과 체험한 그 조화가 이러한 불화의 치유로 여겨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모든 피조물과 맺은 보편적 화해를 통하여 어느 모로 본디의 순수 상태로 돌아가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5. 이 땅의 절대적 지배에 대한 인간의 주장을 멈추고 인간이 제자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주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알려 주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65항~75항 영상 보기

낭독 :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단장 박용혁 가롤로



휴지보다는 손수건으로





2021
2023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수정성당

시노달리타스 체험담

지금 한국교회는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하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교구별 단계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희 수정성당은 이미 3년 전에 '시노달리타스' 용어를 접하였고, 주임신부님과 평협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본당 시노달리타스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솔한 대화와 경청을 통해 본당의 일을 함께 상의하고 실천하며 시노달리타스를 조금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릇된 습성과 인습에 안주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당 운영은 불과 몇몇 사람의 편리나 세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본당 안에 험담과 뒷담화가 넘쳐났으며,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고성과 인신공격이 오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당 재정 역시 사적인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본당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노달리타스 소위원회는 평신도들의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제도의 마련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인습에서 벗어나려

면 교회 정신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본당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의사소통의 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본당 리모델링공사 위원회, 견진성사 준비위원회, 본당설립 60주년 기념 성령묵상회 준비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진솔한 대화와 경청을 통해 본당 성장을 경험하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본당 재정 운영과 사무행정의 투명성 및 공개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1월 『시노달리타스에 따른 본당 규정집』을 발간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당 안에 시노달리타스가 실현될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저희 본당은 많은 변화를 체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앙이 주는 활력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미사성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치를 되찾은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밟아가며 교회의 쇄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평신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참에 사제, 수도자들의 권위주의적 의식도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묻고 경청하면 평신도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우리 교구가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 운영은 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저희 평신도에게 큰 기쁨과 책임감, 자긍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모든 교회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조 정 원 파트리치오

수정성당 전임 평협회장 · 시노달리타스 소위원회

2021년 복음서 가정 이어쓰기 완필 시상식



지난 3월 14일(월)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복음서 가정 이어쓰기 완필 시상식'이 있었다. 금상은 올만성당, 은상은 길천성당, 동상은 사상, 금정, 이기대성당이 받았다. 우리 교구는 지난해를 '신앙과 말씀의 해'로 지내며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가정이 함께 복음서 이어쓰기'를 진행해왔다. 또한 올해도 '가족이 함께 신약성경 필사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신자들 ①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교구민은 회개와 보속, 희생과 극기의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마니피캣

이은희 시몬 수녀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글/곡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 가운데 특별한 성모님의 축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첫 순간을 기념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시작이 한 여인의 순명과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곧장 온 마을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결단으로 응답하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권고를 삶으로 신뢰하신 성모님의 그 믿음이 가져온 특별한 선물임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계신 성모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의 소식 내 맘은 기쁨에 가득차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찬양...'

사순 시기, 예수님의 수난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수난과 죽음, 십자가라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희망을 하느님 말씀에 순명으로 응답하신 마리아의 모범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이 찬양으로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훈 사도요한 (금정성당)

성가
듣기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3)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절취선

■ 사제 인사발령

(인사 제22-05호)

성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박종민	교목(지산고등학교)	교목(성모여자고등학교)
김문경	교목 연수	교목(대양고등학교)
박상범	교목 연수	교목(테레사여자고등학교)
정지윤	교목 연수	교목(지산고등학교)

▶ 부임일

2022년 3월 2일(수)

교 구

부산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내용 : 스튜디오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 ① 커플당 286만원 할인 ② One Stop 혼인 준비 ③ 교구 유지재단 직원 상품권 증정
문의 : 441-3500, catholicwedding.kr

사회사목국(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후원담당 직원 구함

담당업무 : 후원자 개발, 등록 및 관리, 관련 사업 등
접수방법 : 이메일(caritasbs@hanmail.net)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운전면허증 1종 필수)
기타 : 홈페이지(http://rscaritas.com) 참조
접수마감 : 3.23(수) / 문의 : 516-0815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6.3.22.
손덕만(토마) 신부님

사순 제3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본 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 7일~3월 13일] 소계 : 1,020,000원 모금 누계 : 940,722,334원

박준철 1,000,000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정진호 10,000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
강해용 10,0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누계 : 701,667,700원

잔액 : 239,054,634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명지성당 사무원 구함

평일저녁시간제, 주일근무 / 마감 : 3.27(일)까지
서류 : 이력서 / 문의 : 010-9711-7414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고전대학 29기

· 4.6(수)~6.9(목) 매주 수·목요일 19:00~21:00
수요일 :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연옥편] 읽기
(김재경 교수) / 목요일 : 미학의 기초부터 고대
미학까지(김창준 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02호 / 문의 : 519-0441,0465

<p>오두종성형외과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대학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바름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메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p>	<p>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 517-4224 010-5488-4224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앞</p>	<p>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시문)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p>	<p>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p>
<p>법무법인 대한중앙 (사무실 확장·이전)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안 와우빌딩 2층</p>	<p>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인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p>	<p>안락성모안과 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 광반반성, 녹내장, 드림렌즈 원장. 장 현 덕(바로로) 상담문의 525-5656 안락로타리 부산은행 4층(충렬사역 2번출구)</p>	<p>덕천 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 우 일(요셉) 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버게트 건물 6층</p>	<p>이상열마취통증의학과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지하철 1호선 구서역 1번출구 앞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 516-0888</p>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3.21(월) 11: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 464-3909(시각선교회)

해양사목 3월 월미사 및 사순피정

· 3.22(화) 14:00 · 가톨릭센터 6층 경당
강사 : 김현웅 신부(아우구스티노수도회 수련장)
주제 : 성 아우구스티노의 삶과 영성
대상 : 관심있는 모든 교우 / 문의 : 464-2707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3.25(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여성연합회 여성 전신자 교육

· 3.21(월) 12:30~16:30 · 남천성당 대성당
대상 : 부산교구 여성 신자 누구나 참석 가능
주제 : 예수님 죽보 속의 여인들
강사 : 윤원진 신부 / 문의 : 629-8721

전례꽃꽂이연구회 사순피정

· 3.28(월) 09:30~16:00 · 명상의집(오륜대)
작품 : 부활 대축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문의 : 010-5186-4532, 010-7420-1365

ME부산협의회 382차 ME주말

· 4.22(금) 19:00~24(일) 17:30 / 대상 : 부부
(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문의 : 465-1010, 010-4130-4263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4:00~16:00 · 선교회 3층 성전
사전예약제 시행 / 전화면담 가능
문의 : 010-5166-1993(박성태 신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 515-0030

성령새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미사
· 3.23(수) 13:00~15:00
-금요밤미사
· 3.25(금) 20:30~22:3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3.28(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3.23(수) 20:00 대리구 별관

성령새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100단 목주기도
· 3.21(월) 12:00~15:30(미사)
-목요 밤미사
· 3.24(목) 19:50~21:30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성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모임 : 매주 월요일 19:50~21:50 아음성당
문의 : 010-5586-0370

교육 · 모집 · 기타

부산성바로CPE센터

신앙 안에서의 자기돌봄과 내적치유
· 4.5(화) ~ 매주 2시간(10주간)
오전반 10:00~12:00 (10명)
오후반 14:00~16:00 (10명)
교육비 : 20만원 / 문의 : 010-2925-2646

성모솔숲마을 효소단식피정

- 30차(효소단식피정)
· 4.8(금)~10(일) / 20만원, 인원 12명
- 31차(성주간 간헐적 단식피정)
· 4.10(일)~17(일) / 80만원, 인원 20명
문의 : 010-5613-0166

재속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대상 :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 평신도
모임 : 매월 첫 일요일 10:00 부산 장전동 수녀원
문의 : 010-2312-2396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 문의 : 010-3572-0815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4.1(금)~9(토)
말씀피정 : 4.28(목)~5.1(일)
문의 : 010-3340-0201(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 4.18~20, 4.29~5.1, 5.18~20
성지순례 : 4.2~5, 4.9~12, 4.23~26, 5.5~8, 5.12~15, 5.28~31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3.30~4.1, 4.4~6, 4.10~12, 4.19~21, 4.24~26, 4.30~5.2, 5.6~8, 5.10~12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쉽'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기간 : 2022.3월~12월 / 문의 : (02)828-3600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수도회	3.27(일) 14:00~18:00	부산 장전동 본원	010-3241-3107
티엠티신마리아성심수녀회	3.27(일) 13:30	수녀회 본원	010-2835-4858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소방방재학과 신설 (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생명안전사회를 이끌어 갈 스마트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

- 화재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적 소방방재인
- 스마트 소방방재 교육 (소방드론 및 재난GIS)
- 문의 : 정승현 입학사정관(051-510-0706),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김예진(051-510-0621)

www.cup.ac.kr fire.cup.ac.kr

호흡기내과 김준형 과장 부임
‘천식, 기관지질환,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메리놀병원 TV 이비인후과 정태영 과장
“알레르기 비염, 이거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 465-8801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0.11.~)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파) 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주름개선	수맥연구소 제154차 5주교육과정 무료진행 “수맥파, 아는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32년 경력, KBS아침마당 출연 문의 517-3233 서순복(별마차) 010-3862-6834	동의료의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 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	(주)금정소방 소방시설점검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진호(보나벤투라) 514-0119 010-8516-0119	백합식품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맛 백합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분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http:// 대구 053)257-1771 spcfood.co.kr
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한복대여 김필분(모니카), 황지은(마리아)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분 중간)	도로연수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 김경근(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수요양병원 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이사. 오세문(베드로) 상담문의. 750-70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1 (양정동)	미카엘여행사 국내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3일/4일 4.18-21 5.2-4, 5.9-12, 5.23-26 한국성지 167 완주 춘천, 원주교구 4.4(월)~7(목) 010-8650-9690	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제한,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무나(글라리아) *교우 특별 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출구(0층, 빨간역 간판)